

<http://dx.doi.org/10.17703/JCCT.2019.5.1.265>

JCCT 2019-2-32

## 업사이클 디자인 교육 방법을 통한 다양한 문화이해 수업 개발

### Understanding Multi-Cultures through the Upcycling Design Activity Classes

서윤\*

Seo Yun\*

**요약** 본 연구는 앞으로 경험하게 될 국가적 혹은 문화적 갈등상황에서 유연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주요한 학습 내용은 업사이클 디자인 활동을 선정하여 수업에 접근한다. 모두의 문제인 폐기물 문제를 인식시키고 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업사이클 디자인 활동을 거쳐 각 문화들의 대표적인 특징과 배경을 탐구하는 수업방식이다. 군포YMCA 회원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업은 진행되었으며 각 문화적으로 특징적인 소재를 업사이클 디자인을 통해 제작하였다. 모두 폐기물 재료를 사용하여 페트병으로 아프리카의 기린 만들기, 나무 기둥을 활용한 몽골 텐트 만들기, 소스병을 활용한 스노우 볼 만들기, 티셔츠와 섬유로 조각보 및 러그 만들기, 현수막으로 가랜드를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업사이클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학습하게 되며 동시에 환경문제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각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유래와 탄생 배경 등을 탐구함으로써 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주요어** : 업사이클 디자인, 환경문제, 사회참여 미술, 미술교육, 디자인 교육, 다문화, 문화이해, 세계시민

**Abstract** This research aims at developing human resources who will serve as flexible mediators in the future national or cultural conflict situations.

The primary learning contents approach the class by selecting the upcycling design activities, in which the students recognize the problem of waste that is for all and study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and backgrounds of each culture. The classes were held centering around the student members of GunpoYMCA, and the culturally characteristic materials were made through upcycling design. The activities included making giraffes in Africa with plastic bottles, Mongolian tents with wooden posts, snow globes with sauce pots, patchworks and rugs with shirts and textiles, and garlands with banners, which helped students learn the new term upcycling as well as get interested in the environmental problems. Also, they could understand other cultures by creating materials that represent each culture and studying their origins and historical backgrounds.

In conclusion, this research offers value by developing abilities to cope with not only conflicts between cultures but confrontations between nations in the larger scope.

**Key words** :Upcycling Design, Pollution, Socially Engaged Art, Art Education, Design Education, Multi-Culture, Understanding Culture, Global Citizenship

\*정회원, 한양대학교 응용미술학과 미술교육전공  
접수일: 2018년 11월 18일, 수정완료일: 2018년 12월 23일  
게재확정일: 2019년 1월 9일

Received: November 18, 2018 / Revised: December 23, 2018

Accepted: January 09, 2019

\*Corresponding Author: seoyun02080@gmail.com

Dept. of Applied Art, Hanyang University, Korea

## I. 서론

환경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직접적으로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에 관한 문제는 범세계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 이해적인 측면에서의 업사이클 디자인 수업을 구성하고 실행하였다. 그 시발점은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또한 각 시대별로 거론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학생들에게 인지시키고 삶과 연관 지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도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수업을 개발하여 적용함과 동시에 업사이클 디자인 수업으로 얻어질 수 있는 환경문제의 인식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 이해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필리핀의 보라카이 섬이 6개월 동안 폐쇄된다니 소식이 들려왔다[1]. 폐기물 문제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각종 비닐 및 플라스틱 종류의 폐기물 처리의 관한 갈등이 점차 증폭되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폐기물과 관련된 문제는 더 이상 단일적인 국가의 문제가 아닌 모든 지구촌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가 협력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보라카이의 사례처럼 폐쇄의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적, 환경 보호적 측면에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이상 여행을 갈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어 고립될 정도로 어떠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환경보호와 문화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인재양성의 필요성도 절실하다. 문화가 그 시대의 역사를 주도하고 시민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된다고 보았을 때, 문화로서의 예술의 역할은 삶의 질 향상에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2]. 고로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도모하고 이를 디자인적인 요소를 통해 교육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문화 이해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연구는 진행된다. 단편적으로 업사이클 디자인 수업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업사이클 디자인 활동은 방법론적인 사항으

로 받아들이면 된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문화의 특징을 지닌 작품 및 조형물들을 업사이클 디자인 활동을 통해 이해를 증폭시키고 또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의 이해를 위한 목적으로 업사이클 디자인 교육법을 제시한다. 오늘날 교육에 대한 다문화적 접근은 효율성이 높으며, 시대의 문화간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3]. 또한 실제 업사이클 관련 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인 군포YMCA의 회원인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에게 실제 해당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수업의 대략적인 내용은 폐기물들의 소재별 특징을 파악하고 각 문화를 상징하거나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디자인 작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여러 문화들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그 후 관찰되는 효과는 무엇이고 기대되는 시사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모색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업사이클의 정의

<표 1>에서 보듯이 업사이클[4]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기존의 사용법이나 활용방식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창조물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업사이클 디자인 제품들은 이미 생산된 제품이거나 버려진 폐기물을 재료로 활용하는 특별한 목적성을 가지므로 다양한 제품 영역과 조형 방법으로 구성된다[5].

표 1. 리사이클의 종류.

Table 1. Kind of Recycle.

출처: 남미경, 2011, p. 189 에서 재구성.

	분류	의미	목표
리사이클 (Recycle)	업사이클 (Upcycle)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물건의 일부를 사용해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환경에 대한 계투자로서 버려진 폐기물에	주변에 있는, 이미 사용되어졌거나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물품들을 더욱 유용한 자원으로

	디자인 요소를 더하여 제품의 품질과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것	재창조하여 궁극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
다운사이클 (Downcycle)	누구나 손쉽게 실현할 수 있는 재사용이나 재활용 방법을 통하여 사용되어진 물건을 다시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지만 품질이나 상태가 기존 물건보다 낮아지는 것	환경 폐기물의 감소를 적극 추구함으로써 환경 및 수질 오염 및 온실가스배출방지와 에너지 사용 감소를 유도

그 배경은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란 현재 인류의 생활방식이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으며 비교적 최근 디자인 트렌드라고 볼 수 있다[6]. 또한 업사이클은 국내에서는 비교적 그 역사가 길진 않지만 2000년 후반 환경문제에 관하여 문제의식을 느낀 디자이너와 환경 운동가들에 의해 시작되었다[7].

## 2. 문화이해의 정의

문화 이해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선 먼저 문화다원주의(Culturalpluralism)에 관한 내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화다원주의(Culturalpluralism)는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문화다원주의(Culturalpluralism)는 한 문화의 뿌리가 되는 역사, 가치관, 전통의 특수성과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도록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지향하며 자신이 속한 문화와 특성을 달리하는 문화에 대해서도 그것을 승인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념이다[8].

자신이 속한 주류의 문화가 아닌 다양하게 존재하는 문화적 속성과 특징들을 용인하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뜻한다. 따라서 현재 세계화 시대가 도래한 만큼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덕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이해 교육법 중에 하나인 상호 문화이해 교육(Intercultural Education)의 특징으로 조운정[9]은 Schinscke와 Thonburry의 주장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표 2>.

표 2. 상호 문화 이해 교육.  
 Table 2. Intercultural Education.  
 출처: 조운정, 2013, p. 83 에서 재구성.

Schinscke(1995)	Thonburry(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화를 상대화 하는 능력</li> <li>▪ 문화 중재 능력</li> <li>▪ 의사소통 능력</li> <li>▪ 수용 및 감정 이입 능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비교 및 연관 능력</li> <li>▪ 이문화와의 대면에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능력</li> <li>▪ 문화 중개자 능력</li> <li>▪ 관계 극복 능력</li> </ul>

공통적으로 문화 중재, 의사소통과 타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문화다원주의(Culturalpluralism)에 요구하는 역량을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교육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III. 업사이클 활동을 통한 문화이해 예시

업사이클 활동과 문화이해에 대한 연관성을 찾기 위해 실제 업사이클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사례들을 찾고 탐구하도록 한다.

### 1. 소닉페브릭(SONIC FABRIC)

소닉페브릭(SONIC FABRIC)은 카세트테이프를 활용하여 의류 및 잡화를 만든다. 현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음악 관련 스트리밍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과거 워크맨을 사용할 당시 음악이 내장되어 있던 카세트테이프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소재였다. 바로 이 카세트테이프를 활용하여 각각 카세트테이프 50%, 일반 섬유 50%를 혼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낸다[10]. 현재는 없어져 버린 추억의 문화적 산물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또한 업사이클 된 디자인을 통해 색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기업의 아이디어는 그 당시의 사용자들과 현재의 세대를 아우르는 연결점을 찾아 주었다[그림 1].



그림 1. 의류 및 잡화 제품.  
Figure 1. products of clothing & accessories.  
출처: 소닉페브리크(SONIC FABRIC) 홈페이지에서  
재구성, <http://www.sonicfabric.com/about.html>

## 2. 재활용 섬유 공예품 연구

민연희의 연구내용[11] 중의 하나로, 훌치기 염색 기법을 중심으로 재활용 섬유 공예품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훌치기 염색은 고대 아시아에서 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인도, 말레이시아 순으로 보급되어 아프리카 순으로 이어져 내려왔다[12]. 해당 공예품은 폐 직물을 재료로 한다. 그 후 다양한 방법의 훌치기 염색 기법을 사용하여 문양들을 형성하고 최종적으로 작품을 제작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훌치기 염색의 문화적인 유래와 특징을 함께 설명하고 제시한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 주 대상인 중학생들에게 훌치기 염색의 문화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이해함과 동시에 폐 직물을 통한 업사이클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이해의 측면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그림 2].



그림 2. 면장갑을 활용한 바늘 및 골무 꽃이(왼쪽), 런닝셔츠를 활용한 가방(오른쪽): 학생작품.  
Figure 2. Needle and thimble holders made of cotton gloves(left), Bag made by underwear(right): student work.  
출처: 민연희, 2001, p. 44-46 에서 재구성.

## IV. 업사이클 디자인 교육방법의 필요성 및 개발

### 1. 업사이클 디자인 교육의 필요성

폐기물 문제와 환경에 대한 관심은 특정된 한 국가에서만 치중되는 것이 아니다. 지구촌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세계의 큰 이슈이자 해결해야 할 필수적인 당위성을 지닌다. 현대인은 우리가 급변하는 환경적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할 세대[13]라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환경문제의 인식과 이에 수반되는 문화적 가치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문화이해를 위한 업사이클 디자인 교육 수업의 개발

#### 1) 수업의 개관

본 연구에서의 수업은 총 6차시로 구분된다. 각 차시별 수업 재료를 달리하여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디자인을 통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또한 각 국가나 문화를 대표하는 소재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승화시켜 업사이클 디자인 수업을 함과 동시에 문화이해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 수업에서의 쓰일 폐기물 재료들과 문화적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표 3>.

표 3. 재료 및 문화적 특징.  
Table 3. Material and cultural feature.

재료	수업 내용	문화 이해적 특징	관련 국가
페트병	기린 만들기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기린을 통해 환경과 사파리 문화를 이해한다.	아프리카
비닐류, 나무 기둥(곡괭이, 삽 등)	몽골 텐트 만들기	유목민들의 이동 생활 문화 및 몽골 텐트의 구조를 파악한다.	몽골
유리병	스노우 볼 만들기	프랑스 지역 마을의 기념품으로 시작된 스노우 볼을 제작하고 기후적 특징을 파악한다.	프랑스
티셔츠 및 섬유 재료	조각보와 러그	티셔츠를 이어 붙여 한국의 조각보와 독특한 구조인 아	대한민국, 아나톨리아

	만들기	나폴리아의 리그를 표현한다.	반도
현수막	가랜드 만들기	현수막을 오려내어 복유립 스타일의 가랜드를 제작한다.	복유립

## 2) 수업의 개발 방향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올바른 세계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한 분야에서 치중되는 수업이 아닌 범세계적인 문제를 포괄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토대로 한 업사이클 디자인 수업을 선정하여 이를 통해 문화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업사이클을 통한 타 국가의 문화 혹은 다양한 문화에서 도출될 수 있는 가치들의 이해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수업내용으로 개발한다.

## 3) 수업 대상

본 연구 수업에서의 대상자들은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군포YMCA 회원 학생들이다. 초등학교 3-4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2명의 학생들이 참가 하였다. 경기도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한 지역 특성화 사업 중에 하나로 “2017 군포 업사이클 창의 놀이터”에서 업사이클 관련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대상자들이다. 본 연구자는 자원봉사의 목적으로 교육지원을 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자 외에 각 전공 분야별 3명의 강사들이 수업을 함께하였다.

## 4) 교수학습 모형

해당 연구 수업에서의 교수학습모형은 총 4단계로 구분되어 진다<표 4>. 요구되는 주요 역량은 창의적 사고와 심미적 역량을 포함한다.

표 4. 교수학습 모형.

Table 4. Teaching learning model.

동기유발 (1단계)	관계 탐색 (2단계)	업사이클 디자인 및 작품 제작 (3단계)	정리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적인 환경문제 인식</li> <li>폐기물 문제 소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문화별 특징 탐구</li> <li>업사이클 의미 학습</li> <li>업사이클과 문화이해의 공통점 인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사이클 디자인 아이디어 적용</li> <li>작품제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주제 정리</li> <li>작품 발표</li> <li>주변 정리</li> </ul>

## 5) 수업지도안 제시

총 6차시로 구성된 수업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변에서 발견되는 환경문제 및 폐기물 문제를 인식하고 자원의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 둘째, 환경문제와 업사이클 간의 연관성을 구체화할 수 있다. 셋째, 각 국가 및 문화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업사이클 디자인 활동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넷째, 타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업사이클 디자인 활동을 통해 경험함으로써 세계 시민적인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단계별 수업계획은 다음<표 5>와 같다.

표 5. 단계별 수업계획.

Table 5. Stage by stage instructional planning.

차시	수업 단계	수업 활동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기유발</li> <li>학습 목표 제시</li> <li>개념 학습</li> <li>차시예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문제에 대한 시청각 자료를 제공한다.</li> <li>학습 목표를 설명한다.</li> <li>업사이클의 개념을 학습한다.</li> <li>다음 차시에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또한 사용할 재료와 준비물을 공지한다.</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료의 특성과 아이디어 스케치</li> <li>작품제작</li> <li>차시예고</li> </ul>	<p>&lt;아프리카의 기린 만들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플라스틱 페트병의 특징을 적는다.</li> <li>기린이 살고있는 아프리카의 기 후적 특징과 문화를 탐구한다.</li> <li>기린의 특징적인 모습을 관찰하여 아이디어 스케치를한다.</li> <li>작품제작을 한다.</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료의 특성과 아이디어 스케치</li> <li>작품제작</li> <li>차시예고</li> </ul>	<p>&lt;몽골 텐트 만들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삽과 곡괭이에 사용되는 나무 기둥과 비닐에 대한 특징을 적는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몽골 텐트의 탄생 배경과 해당 국가의 기후 및 문화적 특징을 탐구한다.</li> <li>몽골 텐트의 구조를 파악한다.</li> <li>작품제작을 한다.</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료의 특성파악</li> <li>아이디어 스케치</li> <li>작품제작</li> <li>차시예고</li> </ul>	<p>&lt;스노우 볼 만들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캠이나 각종 소스 보관용으로 사용되는 유리병의 특징을 적는다.</li> <li>스노우 볼이 탄생 된 지역의 기후적 특징을 파악하고 이해한다.</li> <li>작품제작을 한다.</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료의 특성파악</li> <li>아이디어 스케치</li> <li>작품제작</li> <li>차시예고</li> </ul>	<p>&lt;조각보와 러그 만들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의 조각보가 어떤 배경으로 제작되었는지 역사를 파악한다.</li> <li>러그의 용도 및 그 쓰임을 파악한다.</li> <li>버려진 티셔츠의 재질 및 소재별 특징을 적는다.</li> <li>작품제작을 한다.</li> </ul>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료의 특성파악</li> <li>아이디어 스케치</li> <li>작품제작</li> <li>차시예고</li> </ul>	<p>&lt;가랜드 만들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수막의 재료적 특징을 적는다.</li> <li>가랜드의 다양한 쓰임을 찾아본다(만국기와 연관 가능).</li> <li>작품제작을 한다.</li> </ul>

1차시에는 업사이클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이해를 위한 사전 동기유발을 위주로 한다. 후에 각 차시별로 활동하게 될 주요 재료들의 특징을 파악하여 3가지로 정리하게 한 후 아이디어 스케치를 진행하여 소재에 대한 이해를 선행하게 한다. 작품제작을 하는 과정을 좀 더 수월하게 하는 목적이자. 문화 이해적인 요소는 각 작품 제작에 있어 탄생하게 된 배경이나 기후, 그 쓰임새 등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교사는 수시로 순회하며 학생들에게 문화적인 이해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모하여야 한다.

## V. 적용 및 결과

군포YMCA에서 진행된 수업의 모습과 내용, 그에 따른 소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아프리카의 기린 만들기



그림 3. 기린 만들기 활동 모습.  
Figure 3. Activities of making giraffes.

폐 페트병을 테이프와 글루건으로 이어 붙인 후 기린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채색 후 마무리를 하였다. 모양과 색, 크기별로 다양한 기린을 만들었다[그림 3].

### 2. 몽골 텐트 만들기



그림 4. 몽골 텐트 만들기 활동 모습.  
Figure 4. Activities of making Gers(Mongolian tent).

대걸레, 곡괭이, 삽 등에서 버려진 나무 기둥을 활용하여 몽골 텐트의 뼈대를 구성하고 폐 비닐, 현수막 등의 재료를 활용하여 바람막이를 만들었다[그림 4].

### 3. 스노우 볼 만들기



그림 5. 스노우 볼 만들기 활동 모습.  
Figure 5. Activities of making snow balls.

소스 용기로 쓰였던 유리 보관함을 업사이클 디자인 활동으로 스노우 볼을 만들었다. 그 안에 구성되는 모습은 겨울을 상징하는 여러 소재들로 꾸며줌과 동시에 스노우 볼 탄생의 배경을 함께 이야기하며 활동할 수 있었다[그림 5].

### 4. 조각보와 러그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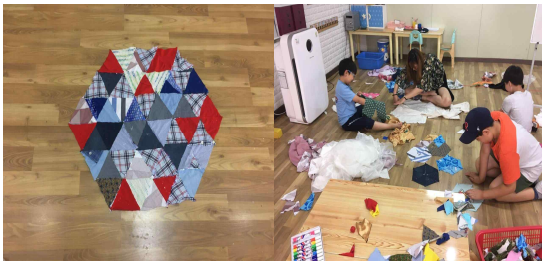


그림 6. 조각보와 러그 만들기 활동 모습.  
Figure 6. Activities of making patchworks and rugs.

본 수업은 한국의 전통문화인 조각보와 타 국가의 러그를 비교하고 공통점을 탐색하기 위해 두 가지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림 6]은 버려진 천 조각들을 수합하여 일정한 형태로 자른 후 바느질을 하여 조각보를 만든 모습이다.

[그림 7]은 폐 티셔츠들을 분해하여 최대한 길게 만들고 또한 끈 형태로 바느질하여 흡사 뜨개질을 연상시키는 방법으로 러그를 제작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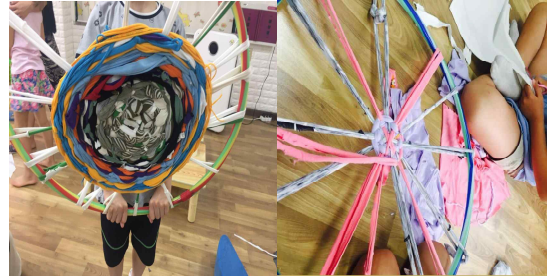


그림 7. 러그 만들기 활동 모습.  
Figure 7. Activities of making rugs.

### 5. 가랜드 만들기



그림 8. 가랜드 만들기 활동 모습.  
Figure 8. Activities of making garlands.

폐 현수막, 포대, 비닐 등을 활용하여 가랜드를 만드는 활동이다. 북유럽 인테리어 소품으로 주로 쓰이는 가랜드를 학생들은 삼각형 모양으로 제작하였다[그림 8].

### 6. 소결

위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얻게 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업사이클이란 용어를 정립하였고 그 목적을 탐구할 수 있었다. 둘째, 폐기물과 연관된 환경문제를 생활 속에서 예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셋째, 단순한 업사이클 디자인이 아닌 다양한 문화를 관찰하는 과정을 내포함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디자인 제품을 직접 제작하며 유래를 발견함으로써 그 대상의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활용 방안을 상상할 수 있었다. 다섯째, 폐기물이라고 치부되어 관심이 없었던 소재들이 새롭게 재탄생되는 과정을 거치며 학생들은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타 문화를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고유한 해당 문화에서 유래 되는 다양한 가치들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 가장 많은 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폐기물 문제를 업사이클 디자인 수업을 통해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 가치를 발견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문화 이해적인 효과를 얻고자 여러 국가 및 문화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의 작품 활동을 진행하여 업사이클 디자인 수업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의 문화적 이해와 가치발견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패러다임과 이데올로기 역시 변화하게 됨으로 학생들에게는 필수적인 교육요소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시기별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문화중재자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자가 참여하였던 군포YMCA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은 이루어졌으며, 총 22명이 참가를 하였다. 각 차시마다 새로운 재료와 문화적 특징을 지닌 요소들을 주제로 선정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본 디자인 수업에 앞서 차시별로 사용되는 폐기물의 특성은 어떤 점이 있는지 탐구하는 과정을 거쳐 작품제작을 모색하였다. 교사들은 제작하게 될 작품의 문화적인 배경이나 특징을 간략하게 시청각자료를 포함하여 강의식 수업을 시행하고, 학생들은 아이디어 스케치를 거쳐 최종적인 작품제작을 하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은 업사이클이란 용어를 모두 처음 접하였기 때문에 수업 초반에는 다소 낯설고 어려운 이해과정을 겪었으나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친숙함을 보였다. 업사이클이란 용어를 자주 언급하기도 하였으며 평소 알지 못했던 소재들(몽골 텐트, 스노우 볼 등)의 유래와 그 문화를 학습함에 따라 관심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학생들에게 문화 이해적인 부분과 업사이클이란 새로운 영역의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한 관심을 이끌었다는 부분에서 큰 의의를 가져왔다.

즉 우리가 여러 문화들의 가치를 이해하고 발견하여 탐구하듯이, 다양한 환경문제의 대안들과 그 차이들을

찾아내어 생활화할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흡사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

## References

- [1] <http://www.mediapen.com/news/view/349291>
- [2] Seung-Kwon LEE, Man-sik Yun, “Relationship between Progressive culture and arts activities and social transformation”,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4, No. 3, pp. 41-50, 2018.
- [3] Tereshkina Tatiana, Tereshchenko Svetlana, “Concept of intergenerational and intercultural approaches in the education for the third age people in Saint Petersburg (Russia)”,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4, No. 3, pp. 6-12, 2016.
- [4] Mee-Kyung Nam, “A Study on Eco-friendly Design Strategy Change by Developed Upcycle Product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Design Culture*, Vo. 13, No. 3, pp. 185-195, 2011.
- [5] Jung-Suk Kwan., “Based on the Perspective of Sustainability, the Characteristics of Upcycle Fashion Design”, *Journal of Fashion & Textile Research*, Vol. 14, No. 1, pp. 13-23, 2012.
- [6] Bo-Young Kim, Sun-Ah, “Exploring the Extension and Implementation Approach of Sustainable Design Concepts - A Comparative Case Analysis of Two Global Companies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Vol. 23, No. 4, pp. 289-302, 2010.
- [7] Sung-sil Choi, Tai-Soon Yoo, “Structural Relations among Perception of Up-cycle Fashion Products, Environment-friendly Consciousness, and sustainable Life-style”, *Journal of Society of Korea Design Trend*, Vol. 47, No. 32, pp. 375-384, 2015.
- [8] Do-Kyung Kwon, “A study on the fine arts appreciation method for the cultural comprehension education in the age of cultural pluralism - For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Major in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soo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 [9] Youn-Jung Cho, “A Type Analysis of Intercultural Understanding in the Multicultural Instruction”, *Journal of Global Studies Education*, Vol. 5, No. 1, pp. 81-108, 2013.
- [10] Dae-Ho Kim, “Eco Creator”, *ImBook*, 2012.
- [11] Yeon-Hee, Min, “A Study on Recyclable Textile Arts & Crafts for Secondary Education -



- focused on art applying Tie-dyeing -”, Major in Textile Design Mokwo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1.
- [12] Yeon-Hee, Min, “A Study on Recyclable Textile Arts & Crafts for Secondary Education - focused on art applying Tie-dyeing -”, Major in Textile Design Mokwo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1.
- [13] Sook-Nyung Ha, Jung-Kyo Lee, “A Study on Upcycling Design Education of Students Majoring in Design”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Spatial Design, Vol. 26, No. 0, pp. 149-158, 2013.